12 STEPS 성경공부
6-6

제 6단계 : 엘림으로의 초대

"창조 이야기"

2010. 2. 17 (수), 20 (토) 강사 :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1. 세계관의 의미 (Worldview) : 모든 생각과 행위의 출처

"논리 정연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어디에 두었나? 하는 일상적인 생각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하기 마련이다. 실상 세계관–그것이 아무리 기초적이고 간단하다 하더라도– 이 전제되지 않고는 전혀 사고 활동을 할 수 없다.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p. 22)"

*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의 표현들:

2. 세계관이 가진 7가지 질문

1)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재는 무엇인가?

2) 외부의 실재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3) 인간은 무엇인가?

4)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6)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7)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타:** 이 세상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또는 아무 책임자도 없는가? 사람은 결정된 존재인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사람만이 가치의 창출자인가?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분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가? 비인격적인 신인가? 신이란 도대체 존재하는가?

3. 세계관의 종류

이신론(Deism),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뉴 에이지...

1) 이신론 : 시계와 같은 우주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인간의 이성 또는 직관으로 옮겨짐.

인간은 우주라는 기계의 한 부분. 우주는 폐쇄적인 체계 안에서 인과율의 일치체재로 창조되었기에 결정적 성격을 가지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음.

2) 자연주의

물질은 영원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복잡한 기계.

역사는 인과율에 의해 연결된 사건들의 직선적 연속이지만 전체적인 목적성은 없다.

4. 오늘날의 문제

다원주의로 인해 엄청난 "거짓말"이 발생함.

5. 창세기의 본질

신화(Myth)가 아니며 과학적인 글도 아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신학적인 글

6. 창세기가 말하는 신학적 메시지

1) 하나님에 대한 신학:

2) 인간에 대한 신학

3) 자연에 대한 신학

4) 구원에 대한 신학

7. 창세기의 근본 메시지 : 샬롬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

8.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창세기

인성과 신성의 관계

The nature of Jesus Christ;

Therefore, following the Holy Fathers, we all with one accord teach men to acknowledge one and the same God, our Lord Jesus Christ, at once complete in Godhead and complete in manhood, truly God and truly man... one and the same Christ, Son, Lord, only-begotten, recognized IN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두 본성에 있어서, 혼란도 없으며, 변화도 없으며, 나눔도 없으며, 분리도 없다) the distinction of natures in no way annulled by the union,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ming together to form one person and subsistence (hypostasis), not as parted or separated into two persons, but one and the same Son and Only-begotten God the Word, Lord Jesus Christ....

9. 기독교 세계관의 대답 : 제임스 사이어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삼위의 인격이시며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며 전지하시고 주관자이시며 선이시다.

2.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어 개방 체계 속으로 인과율의 일치제로 운행하도록 하셨다. (우주는 무질서 하지 않으며 우주가 프로그램화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우주 운행의 전개 유형에 끊임없이 관여하심)

3.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격, 자기 초월성,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등을 지닌다.

4. 인간은 주변 세계와 하나님, 곧 그 분을 알 수 있다.

5.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훼손 되었다. 한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선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셨다. 물론 인간은 이 구속의 사실을 접하고 거부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6.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분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문이든지, 인간의 갈망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실 유일하신 분과 영원히 갈라서는 문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7. 윤리는 초월적이며 선(거룩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8. 역사는 직선적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 의미있는 사건들의 연속이다.